

■ 지평 소식 ■

**[공익] 지평, '한·중·일 역사분쟁' 관련 공익강연 개최**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4월 1일 김종인 교수(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를 모시고 '한·중·일 역사분쟁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2014년 제1회 공익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공익강연에서는 가속화되는 일본의 우경화,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급부상, 북한의 권력 3대 세습, 북핵 문제 등에 대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중·일 3국 사이에는 역사문제와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대표적으로 동북공정이 문제가 되었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교과서, 독도영유권, 위안부, 신사참배 등이, 중국과 일본 사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가, 한·중·일 3국 사이에는 방공식별구역 이슈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익강연을 통해 한·중·일 사이에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견제와 균형의 틀 속에서 정치적·외교적 안정을 찾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관련 사진]**



법무법인 지평 '2014년 제1회 공익강연 한·중·일 역사분쟁에 관하여(2014. 4. 1.)

## [공익] '소외계층을 위한 제빵 만들기' 활동

법무법인 지평은 매 짝수달 셋째 주 토요일에 지속적으로 제빵 만들기 공익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도 빵 만드는 사람들 공동체(빵만사)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빵 만들기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이날 지평 소속 변호사 및 직원 10여 명은 약 5시간 동안 개량, 반죽, 빵 굽기, 포장 공정에 직접 참여하여 식빵과 야채빵 등을 만들고 복지관 및 경찰지구대를 통해 해당 빵들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